

이제 풀백 문법 실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종합형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

세트 구성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이 나와 있고

그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가 두 개씩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현대 문학 이론이 나와 있고

끝부분에는 그것을 어떻게 고전 문법하고 연결 짓는지가 제시되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한 문제를 더 푸는 방식이고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 좀 드물게.

그러나 이런 문제 구성을 여러분이 봤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것은

이미 한 전체 지문 중에서 3분의 2지점까지 내려오는 현대 문법은 알고 있어야.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잘 풀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고전 문법 부분은

아는 정보도 나오겠지만, 아닌 정보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닌 정보조차도 내가 현대 문법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연관성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차이점.

특히나 고전 문법의 경우에는 친절하게도

현대어 풀이를 같이 제시해주기 때문에

1:1로 맞춰보는 연습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나름대로 형태소 구분해주고

여기에 연결되는 고전 문법에서 특수성 있는 선어말 어미라든지 접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라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현대 문법을 잘했기 때문에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일반 기본적으로 오늘은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거 한 번 정도는 간단하게 보긴 할 거예요.

그러나 실전에서 여러분이 접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자, 라는 게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1번부터 2번까지 보도록 하자고요.

애도 마찬가지로야.

지금 예를 들면 이게 6문단까지 나와 있잖아요.

6문단까지 있는데 그중에 1문단부터 4문단까지는

현대 국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핏 딱 봤을 때 2문단에 보게 되면 과거 시제,

3문단에 현재 시제, 4문단에 미래 시제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모르는 내용이나고요.

그렇진 않잖아.

그런데 가볍게 봤을 때.

물론 이것조차 알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2문단에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일반적으로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시간 표현.

그러니까 1번 문제 푸는데도

사실 1번, 2번, 3번, 4번 꼭꼭 눌러 답아서

맞고, 맞고 확인하는데는 차분히 풀어야 되어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5번 답지를 딱 보는데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선행할 때.

아니,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한다는 이야기는

과거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하고 딱 답지를 봤더니 이제 나무 아래에서 낮잠은 다 잤다.

이거 우리 어떤 유형이었어요?

과거 선어말 어미가 았이나 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금 문장처럼 이제 잠은 다 잤다.

이건 앞으로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 있는 상태를 제시하는 건데

지금 답지에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안 맞아.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서 좀 다소는 허무하게.

왜 1, 2, 3, 4번 보는데 꼭꼭 눌러서 읽었을 테니까.

그러나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허무한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딱 정확하게 맞았다는 생각을 갖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건시나 발화시의 관계성을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하고 연결 짓지 못하는 친구는 지문을 읽어야 돼.

그리고 지문을 통해서 사건시가 발화시에서.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출제자도 그걸 위해서 이 지문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차라리 내가 만약에 그 정도.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를

시제하고 연결 짓지 못하는 정도의 실력이 전무한 상태다.

문법 풀지 마.

그게 차라리 낫죠.

왜냐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지문 읽는데 시간 다 써,

그다음에 문제는 푸는데 정확도는 떨어져.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문법 5문제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거 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세 번째 줄.

그리고 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 부사와 결합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되기도 하고

현재와 단절된 상황이나 먼 과거는

았, 었 또는 었었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중에 더 계열은

발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일을 회상하는데 쓰이는 데까지는

이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했던 바고

또 교재에도 실려 있고 여러분이 공부해야만 하는 요소예요.

그런데 그 뒤에 1인칭의 경우 쓰임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1인칭의 경우 쓰임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는 건 구체적 예도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 이전에.

우리가 시제와 관련된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그런 문제 보면

이런 참신한 문제가 있구나.

문제를 통해서도 내가 문법 정보의 지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 어떤 문제였었냐면, 선생님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더라고 하는 요소를 1인칭이랑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건데

어떤 식이냐면, 내가 어제 밥을 먹었더라.

내가 직접 경험한 건데 먹었더라 해서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회상하는 방식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꿈 같은 경우.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내 행동은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한 건 아니잖아요.

의식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니까 내가 꿈에서 왕이었던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표현들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이 전체가 딱 있었다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보기를 주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런 거 참신한 걸? 이러면서도 즉흥적으로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것이고.

물론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은 사실 이 부분은 좀 이게 무슨 이야기이지?

1인칭 경우 쓰임에 제약이 따른다고?

그런데 이런 요소를 표시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안 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딱 보고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속도와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속도는 분명 차이가 나잖아요.

특히나 이런 문법적인 요소에 자신감의 부분인데

다 아는 내용이구먼 하고 쪽 내려가서 푸는 거랑

여러분은 이렇게 좀 빠르지만.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느리진 않아요.

그런데 보다가 예를 들어 2문단에 딱 이 부분.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쓰임에 제약이 따른다.

무슨 소리지, 라고 한 부분을 일단 표시하고 넘어가란 말이야.

그리고 내려가 봤더니 3문단에 현재 시제.

4문단에 미래 시제.

다 뻥한 이야기들 하고 있죠.

이제 5문단 갑니다.

중세 국어도 과거, 현재, 미래.

삼분 체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동일하다.

다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중세 국어에 좀 집중할 테니까

옛말 문법에 집중할 테니까 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로 봤으니 지식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보면 먼저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계열.

과거 시제부터 갑니다.

과거.

더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와 같다, 안 같다? 같다.

현대 국어에 선어말 어미 더도 있지만, 옛날에도 더가 있었다.

차이가 보이죠? 뭘니까?

중세에서 더가 현대 국어와 달리

모든 인칭에 두루 쓰였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전에 우리 위쪽에서 어떤 정보가 추가되었습니까?

이 더의 경우에는 1인칭의 경우에는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막 꿈에서 뭐 했더라.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는 거니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1인칭인 경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 시제에 이 더가 중세 시기에는

1인칭에도 사용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단 뭐였습니까?

형태가 다로 구성이 잡힌다, 라는 이야기죠.

형태가 바뀌어서 다로 구성이 잡힌다, 라는 정보를 줬어요.

다음,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인 이것과 ㄴ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써서 표현하였으며.

따로따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계열 같은 경우에는 흡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은, 는의 형태랑 굉장히 유사한 구성이긴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는 보편적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에 현재 시제 일을 나타내는 건데 보편적 사실.

예를 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보편적 사실은

시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고 미래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인 경우에 시제성을 초월한 건데

그러한 보편적 정보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현재 기본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현대 국어의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는 우리도 지금 쓰고 있는

리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라는 정보를 줬죠.

이제 그러면 1번은 아까 전에 간단하게 5번이었음을 확인해봤고

2번 문제 보도록 하자고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갑니다.

주거미 날오디 내 하마 명종호라, 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명종호라 부분 보겠습니다.

한자 읽으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목숨 명 자에 마칠 중 자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졌다.

풀이를 보니까 죽었다고 풀이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명종호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이가 어떻게 되어있다고요?

죽었다고 풀이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에서 뭐가 있어야 돼.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문을 통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를 사용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시제는 선어말 없이 표현하거나,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선어말 어미가 아예 없이도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현대 국어와 달라요.

왜? 우리 현대 국어는 과거 선어말 어미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과거일까, 말까잖아.

였이나 았이나 았었, 었었.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 선어말 어미가 쓰이고 있질 않다는 겁니다.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안 쓰인단 이야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애가 과거에 해석이 된다, 라고 보는 걸까요?

힌트는 이 (가) 예문에 있는 앞서 하마, 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풀이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미, 이렇게 되어있죠.

끝난 거지.

즉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명종호라 하면 이미,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완결된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행위는 이미 시간적으로 과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명종호라 부분에서는 위에 제시했던
시제 선어말 어미는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마가 나와 있는 구성으로 봤을 때
문맥상 과거임을 나타내는 게 분명하고.
따라서 풀이도 죽었다고 풀이가 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없이
과거에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정확한 풀이죠.
2번 갑니다.
(나)를 보니까 내 농담하더라.
다가 나왔어.
농담하더라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대어 풀이가
내가 농담하였다가 나오죠.
였이라고 하는 과거 선어말 어미가 보입니다.
그러면 애가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는데 1인칭이야.
내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문에 보게 되면 다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기에 보게 되면 (나)에 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비추어봤을 때 2번,
주어가 1인칭이므로 선어말 어미 다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가 없겠죠.
그다음에 (다)를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또 묻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게 이제, 라는 표현이죠.
이제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묻는다, 이렇게 표현되어있으니까
현대 국어에서도 는, 이라고 하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대응되는 것이 바로 나, 라고 하는 걸 지금 쓰고 있죠.

3번, 선어말 어미 나를 통해서 현재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그다음에 (라)를 가겠습니다.

하늘이며 사람 사는 땅 다 뫼호아 세계라 하나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니라 이거 보입니다.

그런데 풀이를 보면, 하늘이며 사람 사는 땅을 다 모아서 세계라 한다.

그러면 뭐의 개념이죠?

바로 보편적 정보죠.

그건 시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정의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보편적 정보를 주고 있는 개념이고

4번 설명처럼 현재형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고.

이게 지금 사용되었고

그것이 보편적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5번, 틀려야겠죠?

내 이제 분명히 너ㄷ · 려 닐오리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이제 분명히 너에게 말하겠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미래로 해석되고 있는 현대어 풀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지문에 보게 되면 뭘 사용해야 된다?

리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5번에 보면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사용해, 라고 했어요.

(마)에 보게 되면 닐오리라, 라고 되어있죠?

뭐가 보여요? 리가 보이네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리가 문제는 5번이 왜 틀린 거야?

현대 국어 안 쓰이냐고.

나 가리라, 안 쓰입니까? 쓰이잖아요.

그래서 리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X가 되는 겁니다.

미래 시제의 의미는 정확하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1, 2번 풀어봤고 3번하고 4번을 보도록 합니다.

보니까 애는 역시나 우리가 오른쪽에 보게 되면

거기 한 편 나오는 지점 이전까지는 현대 국어의 지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안은문장, 안긴문장 개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중세 국어 당시, 이거 선생님이 또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옛말 문법 할 때.

중세 국어의 명사형 전성어미.

현재는 뭘 사용하는 겁니까?

ㅁ이나 또는 기, 음.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중세 국어 당시에는 명사형 선어말 어미로 뭘 사용했다?

기본적으로는 음과 움이 사용되죠.

특수하게 움이 나올 때가 있고 립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 반모음 계열로 끝났을 때나 아니면 아니림, 이림.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서술격 조사 -이다 계열로 갔을 때 립.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까지 외울 필요 없다고요.

정보 줄 때 보세요.

기본형을 외우시란 말이에요.

움이나 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모음 조화 때문에.

그래서 모음 조화 때문에 움이나 음.

양성, 음성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

물론 이 기의 경우에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15세기 국어에 아예 안 쓰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드물게, 아주 드물게 쓰이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근대 이후예요.
그래서 애는 좀 드물죠.
그래서 애는 본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전까지 안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드물게 나오는 애를 가지고 문제로 내주긴 어려워.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현대 국어에서도
기를 명사형 전성어미로 사용하는 판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두고 문제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였죠.
-디.
이 디가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이건 언제 쓴다?
우리가 보면 명사절을 만드는 그 부분에서
명사절의 지표가 어쨌든 -하기, -口, 음.
이게 지금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태로 그 명사절의 끝부분에
명사처럼 쓰이는 그 구성에서는 디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이라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본문 설명에 나와 있지만.
따라서 일단 3번 문제부터 확인해봅시다.
이건 현대 국어 이야기죠?
명사절이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는 걸 묶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로 합시다.
ㄱ, 어디에 괄호 쳐야 돼요?
비가 오기, 괄호 쳐야 되겠죠?
비가 오다가 비가 오기로 절로 안졌어.
그런데 바로 뒤에 조사가 뭐가 있어요?
를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애는 명사절이 뭐로 쓰인 거?

목적어로 쓰인 거.

그다음에 ㄴ 갑니다.

어디에 괄호 쳐야 돼요?

ㄴ 적어보자.

3번 문제에서 ㄴ 보게 되면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이러면 안긴문장에 또 뭐가 안겨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다, 라고 하는 주어, 서술어의 구성.

이렇게 주어랑 서술어가 전체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뭐가 안겨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무슨 절로 안겨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이른 시간이다, 라고 하니까 관형절 안겨있죠.

그래서 일단은 관형절이 안겨있는 상태.

그런데 관형절 안에 지금 또 뭐가 있어?

집에 가.

이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명사절로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명사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집에 가기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ㄴ의 기능은 부사어죠.

다음 ㄷ, 그는 1년 후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디에 괄호 쳐야 됩니까?

그는 뭐로 결심하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로 안에

1년 후에 돌아가기, 이 부분 괄호 쳐야 되죠?

1년 후에 돌아가기.

그러면 여기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로가 붙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격조사를 외우시고 부사격 조사 중에 대표적으로 로 있죠.

그러면 애는 부사어라는 거 확인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매는 건 큰 부분인데

큰 부분에 어디에 괄호 쳐야 돼?

병원에 가기에 괄호 쳐야죠.

그래서 해맬 것도 아니야.

이제 이런 거 문제 못 풀면 안 돼.

조사가 뒤에 없어.

그런데 넣어주면 되잖아요, 격조사.

서술어가 뭐죠? 싫어하다.

어린 아이들은 싫어하다.

싫어하दा의 자릿수 몇 자리?

타동사잖아요.

누가 무엇을 싫어하다 반드시 나와야죠, 목적어.

그러면 지금 무엇을 자리에 뭐가 나온 거야?

병원에 가기를이죠.

그러니까 를이 생각되어있다 할지라도 목적어임은 분명합니다.

즉 어린 애들은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दा의 구성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없어도 목적어임을 확인해주고 구분했을 때

3번이 답이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문제 보자고요.

4번 문제를 보면 ㉠부터 ㉣중에

명사절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걸 보라고 했어요.

㉠ 보겠습니다.

이건 많이 본 문장이기 때문에, 훈민정음.

날로 바+메, 어떻게 조합이 된 거야?

이거 더하기 음이나 음이 들어간다고 했죠?

—가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지금 들어온 상태죠?

그리고 이어적기 조사가 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물 나온 겁니다.

항상 —나 아래아는 저요.

—나 아래아는 힘이 약해서 다른 모음이랑 붙으면 저요.

그래서 ㄱ가 내려와서 ㅁ 넘어오고 해서

연음돼서 ㅁㅊ메 나온 거죠?

즉 여기서도 명사형 전성어미가 발견됐습니다.

㉠은 통과.

그다음 ㉡를 가보도록 할게요.

㉡를 보게 되면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인데 축추기 부분이 어렵진 않아, 답을 못 찾진 않을 것 같아.

이 부분에서 기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실제로 풀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풀이가 되어있죠?

현대어가 축축하게로 되어있는 거잖아.

축축하게.

그러면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성을 따져보게 되면 축축+ 부사화 접사라고 봐야겠죠?

부사화 접미사가 붙어서 이어적기 해서 축추기가 구성된 거죠?

풀이는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정답은 ㉢고.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좋겠죠.

부모ㄹ·ㄹ 현더케 흠이, 라고 할 때 흠 부분이죠?

-를 하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더하기 역시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움이 지금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잡히면

ㄱ가 아래아를 먹어주면서 흠이 나온 겁니다.

역시 명사형 전성어미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 부분에 보게 되면, 돌아옴 이거 나오죠?

그래서 도라, 이어적기 한 거죠?

도라오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더하기 역시나 움.

그러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물은 돌아옴,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이제 마지막 ㉔부분 좀 주목해보세요.

뭐냐하면, 이거 문장을 더 적어볼게요.

내 겨지비라 가져 가디 어려블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진 지금 나+ | 로 해서 내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주어, 주격 조사예요.

그러면 뭐가? 내가 겨지비기 때문에

가져가기가 어렵다, 라는 풀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가져가기가 생략되어있는 개념이죠,

현대어 풀이를 보게 되면.

그러면 애가 지금 서술어로 쓰이는 거고

애가 주어로 지금 쓰인다고 봐야 돼요.

무엇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이어진 문장이잖아.

내가 겨지비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풀이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져가는 것이 지금 애에 직접적인 주어가 되는 구성인데

물론 여기 내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해줘야죠.

이것도 가져가다가 서술구잖아.

안긴문장이 됐단 이야기에요.

그러면 애가 지금 이 서술어 구성인 거고

또 여기서 는 내가, 라고 하는 게 중복되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가 주어가 되는 거고 이게 안은문장 구성이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주어를 통해서 서술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애가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부분

이 가져가 뭐로 끝났어?

디로 갔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현대어 풀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져가기(가) 어려우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의 역할을 뭐가 해주고 있다?

디가 해주고 있다.

딱 이 디가 나오는 지점이 언제라고요?

이렇게 명사절 잡힐 때.

명사절의 지표로 디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확인이 됐죠?

그다음에 5번에서 6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몰랐죠?

그런데 이미 이거 나오기 전에도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정보는

현대 국어랑 옛말 문법이랑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이들 다뤄봤어요.

그거를 그때는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게 나올까? 하는 친구들이 힘들게 보고 틀리고 했던 거죠.

봅시다.

자료 내용을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이 내용이죠.

우리 현대 국어, 중세 국어 나뉘진다면

우리가 ㅂ 받침을 쓰고 있는 놈 중에서는

규칙 용언이 있고 불규칙 용언이 있지 않냐.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ㅅ 받침을 쓰고 있는 놈 중에서도 규칙 용언이 있고

불규칙 용언이 있지 않느냐,

그 예를 지금 잡아본다면, 좁다 같은 경우 예를 들고 있죠?

좁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규칙과 불규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미에 뭘 붙여야 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야 됩니다.

자음으로 되는 거 붙여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모음으로 되는 걸 붙여봐야죠.

그래서 좁다, 좁아.

어간의 ㅂ이 변함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돕다 같은 경우 돕다.

그다음 어떻게 돼?

도와.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ㅂ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국어에서 설명을 할 때는

ㅂ이 ㄱ나 ㄷ로 변하는 현상.

그래서 어간 받침 ㅂ이 ㄱ/ㄷ로 변해

어미 쪽에 붙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중세 국어 신경 안 썼을 때.

또 ㅅ 불규칙 같은 경우도 규칙과 기준을 비교해본다면

벗다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벗다, 벗어.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잡히는 반면에 여기에 있는 노를 젓다 같은 경우.

젓다, 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ㅅ 불규칙이라함은

ㅅ에 탈락을 의미하는 거였죠?

모음 어미와 결합했을 때 ㅅ이 탈락하는 경우.

즉 이럴 때 불규칙성을 확인해보는 거였어.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다 중세 국어에서 있었던 그러한 과정 속에

현대 국어의 결과물이 남아있는 거다, 라고 보는 해석 아닙니까?

가령 이게 중세 국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좁다, 그다음에 애는 어떻게 처리되죠?

이어적기.

이거 지금 중세 국어 15세기를 기준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6번 문제에 15세기와 17세기 이후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17세기 이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이후로 봤을 때는 15세기와 차이점을 봤을 때

뭐가 없어진다는 거?

순경음 비읍도 없어지고 반치음도 없어진다는 점.

그래서 이 변화들이 현대 국어에

어떻게 다르게 구축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ㅂ은 그냥 연음되는 거.

연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일단 당시에는 이어적기를 하는 거니까 조바.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애를 보자고요.

돕다, 이렇게 써야 될 놈인데 도와를 어떻게 쓰냐 이거죠.

이때 모음 어미 앞에서는.

아라고 하는 모음 어미 앞에서는 이 ㅂ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고

그리고 연음이 되기 때문에 ㅂ은 결국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경음 비읍이 만들어진 것이 연음돼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물론 우리는 이 자리, 이 순경음 ㅂ이 결국 ㅂ/ㅍ로 변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애가 애로 변한 게 아니에요.

순경음 비읍이 애로 변한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벗다, 그다음에 이어적기 하니까 버서.

이렇게 썼을 것이고.

그다음 애는요?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ㅅ다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원래 기본형을 이야기해보자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애를 쓸 수가 있어, 없어? 못 써.

왜 못 써?

당시에 중세 때는 8중성법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8중성법 이야기하죠?

첫 번째 문단에 보게 되면 8개의 소리만 올 수 있었다.

그래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그리고 옛이음까지.

그래서 이거를 못 쓰는 거야.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 같은 특수한 글에서만

이런 받침음 받침을 쓰고 있는 거지

일반적 8종성 지키게 되면 결국 어떻게 써야 된다?

ㄷ이나 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받침음은 ㅅ에 가깝죠.

그래서 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는 이어 적으면 받침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저서라고 되어있었던 건데

이 받침음이 없어지면서.

17세기 이후에 없어지면서 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게 되었다, 라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물론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었어요.

챙겨봐야 되는 게

자료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순경음 비읍과 받침음은 15세기, 16세기를 지나며 소실.

먼저 순경음 비읍은 15세기 중엽 넘어서면서

ㅏ나 ㅑ 앞에서는 반모음 ㅓ로 바뀌고.

일단 이거 이야기합니다.

순경음 비읍의 경우에서 ㅏ, ㅑ 앞에서 ㅓ/ㅕ로 변하고

그다음, 아래아나 ㅡ 앞에서는 모음과 결합하여 ㅓ/ㅕ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이놈 같은 경우

이놈인데 애가 뒤에 아랑 붙어.

그다음에 그 뒤에 애는 양성이니까

도우니, 이런 식으로 썼어, 라고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애는 순경음 비읍이 ㄱ로 변해서 도와가 되는 구성.

ㅏ는 남아있는 그 상태죠?

그런데 애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경음 비읍이 ㄱ로 바뀌면서 결합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애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없어지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도오니,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ㅏ, ㅑ 앞에서는 이거로 바뀐다고.

그냥 이놈이 이거로 바뀌는 거고.

다음 아래아나 이 ㅡ 앞에서는 모음과 결합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놈이랑 결합해서 ㅓ나 ㅕ로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네들이 조합해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놈은 지금 이 아래아랑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로 변한다는 이야기죠.

이 아래아의 흔적은 없어지게 된다는.

그래서 지금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5번 문제는 쉽죠?

2번이 답이었어.

15세기 중세 국어 도봐가 현대 국어의 도와가 되는 것은

순경음 비읍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왜 바뀌어?

오로 바뀐 거지.

이건 지문 보고 지식으로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고

6번 문제를 봤을 때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불규칙과 규칙을 나눠야 돼.

1번에 곱다는 ㅂ 불규칙이죠.

고와로 변합니다.

현대 국어에서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다음 2번, 곱다.

그어, ㅓ 빠지죠?

그러면 ㅓ 불규칙.

3번, 높다.

누워.

ㄴ 불규칙이죠?

4번, 빗다.

빗어.

쓸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소리아 비서, 라고 연음이 되긴 하지만 표기를 할 때는 ㅅ 받침 주고

그다음에 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애는 ㅅ 규칙 용언이죠?

다음에 손을 잡다.

잡아.

이거 역시 ㅂ이 유지가 되는 규칙 용언입니다.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순경음 ㅂ이라든지 받침음이라든지

이게 튀어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 빨리 지울게요.

왜? 지금 빗게 같은 경우는 받침음 받침 썼죠?

다음에 잡아 같은 경우에도 순경음 비읍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15세기 중엽 이전의 표기는 좋아.

우선 봐 봐.

1번에 곱다 같은 경우에는 곱다는 양성이니까 불규칙이고

3번도 비교해볼게요, 높다.

양성이죠? 음성이죠?

그러니까 애랑 붙어야 되는 어미는 뭐랑 어울린다는 거죠?

아랑 붙거나 아니면 이게 붙어야 되고

그다음 애는요?

어랑 붙거나 아니면 은이랑 붙어야 되는 거고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애랑 붙을 때는 순경음 비읍이.

이렇게 순경음 비읍 만들어지면서 순경음 비읍이 ㅅ로 바뀌어.

그래서 고와.

애는요? 누워. 이렇게 되는 거죠?

ㅅ로 바뀌니까.

그다음 애랑 붙으면, 애랑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결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결국 애랑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음 애랑 붙으면 어떻게 돼?

누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지금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순경음 비읍이 없어질 때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7세기 이후를 딱 봤을 때 1번 답지는 전부 다 맞아.

고와, 고운으로 썼어.

그런데 높다 같은 경우는 누워, 누은이라고 썼단 말이야,

운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게 바로 1, 3번이었을 거야.

그런데 3번은 맨 마지막 칸에서 문제가 생기고

2번은 뭐의 문제예요?

반치음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는 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굿다의 다섯 번째 칸에 그서가 아니라 그어가 되는 거죠.

그서가 아니라 그어의 형태로 바뀐다.

반치음이 없어지면 이 자리는 그냥 비어지니까.

ㅅ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안 했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힘들게 풀었죠.

이 당시에 굉장히 아이들이 뭐야,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제는 너무 잘 알아.

이 옛말 문법도 선생님은 무서워요.

뭐냐하면, 점점 어려운 난이도 있는 것들을 계속 건드렸고

그런 걸 평가원에서 제시했고 이제 이게 학습이 되었으니까

학생들이 알 거라고 보면 똑같은 거 또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런 노파심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옛말 문법 더 많이 가르쳤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요, 아무튼.

그러나 만약에 또 더 모르는 정보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 동일하니까, 공통적이니까.

그래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도움받아서

풀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7번에서 8번 갑니다.

애는 편해.

또 옛말 문법 없어.

여기는 그냥 세트 구성이라 옛말 문법은 없어서 편한데 많이 틀렸죠.

지금 여러분, 여기 되게 좋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거 지문 좀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읽어보세요.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 정보를 줘요.

선생님이 이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성어, 파생어 언급할 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은 좋은 게 뭐냐면, 마지막 문단에 보게 되면

문장 단위에서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걸 끊어버리죠.

그런데 이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딱 보면, 서술어의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야.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를 자르려면 무조건 주어부, 서술부 해서

두 단락으로 나누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부와 서술부가 딱 잡혔어요.

그러면 목적어의 경우에는 주어부에 집어넣어, 서술부에 집어넣어?

당연히 서술부죠.

왜냐하면 서술어가 뭐임에 따라서

목적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즉 자동사, 라고 하면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지만

목적어를 요구하는 먹다와 같이 타동사면

당연히 목적어는 서술어 때문에 생기는 거여서

서술어 영역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누게 되면 주어, 다음에 서술어.

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

또는 주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일단 주어를 잘라내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주어나 서술어 부분 같은 경우,

중간에 목적어 나오는 것들도 수식을 받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책이 어찌고저찌고 나오는데

이 책이 어떠한 책.

그러면 이 어떠한을 갑자기 서술구랑 연결 지을 수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끊어.

그래서 주어부로 다 넘겨버리고.

또 어떻게 뭐하다, 라고 할 때 어떻게 구성으로 잡히는 부사어도

다 서술부 쪽으로 넣어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끊어준 다음에 그다음에는 수식해주는 말과

수식 받는 말.

이렇게 한번 나눠줄 수 있고 하는 방식을 소개해주고 있고

또 이 안에 보게 되면 안긴문장일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통해 우리는 8번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지금 먼저 제시해볼 게 7번입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민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문에서 해줘요.

여러분, 이 민물고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형태소를 구분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민에 물에 고기라는 건 알고 계세요?

형태소를 나누면 3개라는 거?

이 중에 민이 어떤 기능입니까?

접두사죠.

우리가 민소매옷,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민달팽이.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민물 같은 경우에는 염분기가 없다고 해서

없는 개념으로 민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민물인데.

그러면 애는 접두사야.

모를 수 있다 쳐.

그런데 어차피 지문에서는 애가 어떤 뜻을 가진다를 물어보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당연하겠죠.

물, 어근이죠.

고기, 어근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돼.

애가 먼저 붙고 최종 이렇게 붙었느냐,

그러면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민물과 고기.

그러면 이렇게 걸리게 되면 선생님이 말했어요.

애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파생어죠.

접두사나 접미사가 있으면 파생어죠.

파생어든 합성어든 합쳐졌어.

그러면 어근 되죠.

그거 꼭 기억해야죠.

합성어든 파생어든 만들어졌어.

그러면 개는 어근이야.

그냥 하나짜리 어근이라고요.

우리는 직접 구성 요소를 따질 때 결국 뭘 고민하면 되냐면,
직접 구성 요소가 그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합성어나 파생어나는
결국 파생어나 접두사가 재료로 있느냐죠.

접두사, 접미사가 최종적으로 있냐 없냐야.

애는 합쳐졌으면 접두사 취급 안 해.

민물이라는 하나의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근이에요.

그러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러면 뭐가 된다?

합성어로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물고기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물고기에 민이 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뜻이 물고기 없음.

이런 것도 아닌데.

민물에 사는 고기, 이런 의미가 맞잖아.

그래서 위엣것이 맞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물고기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물고기가 먼저 붙고 민+물고기.

이렇게 붙는 건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붙는다면 애는 뭐가 되는 거죠?

파생어가 된다고요.

왜? 직접 구성 요소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접두사가 들어왔어.

최종적으로 접미사가 들어왔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처음 문단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7번 문제 보게 되면,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에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다.

보기에 이야기했죠?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보고.

그러니까 이 안에 직접 구성 요소를 자르게 되면

민이 나오는 거다, 라는 이야기죠.

민+물고기 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이거 아니라 어쨌든, 합성어인데

이걸 설명해줬고 문제로 제시합니다.

아예 쪼개고 시작할게요.

㉠는 나/들/이/웃.

㉡는 눈/웃/음.

지금 단어로 만들어져있는 걸 먼저 쪼개놓고 가는 겁니다.

이건 신경 쓸 거 없고.

여러분, 지금 합성어나 파생어나를 판단할 때 있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뭐야?

어미죠.

그러니까 용언에 있는 어미는 굴절 접사이기 때문에

파생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하나로 다 붙어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다음 집/집/이.

그다음에 놀/이/터.

생각해봐요.

직접 구성 요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애죠.

맞아요?

애는요?

애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다음 애는요?

이건 헷갈릴 것 같아.

애는 이거죠?

설마 집+집이? 아니지.

애는 놀+이터? 아니죠, 놀이+터죠.

이제 답지 갑니다.

1번, 1번도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했어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일단 최종은 합성어 아니야.

최종은 합성어예요, 아니예요?

하나로 합쳐지면 애가 파생어든 합성어든 고민할 필요 없다고 했죠.

어근이야.

그리고 애가 어근이잖아요.

명사 어근.

그러면 합성어예요.

그런데 1번 답지에 애가 합성어나가 확인돼야 돼.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애일 수는 없잖아요.

애는 단일어인데.

하나가 합성어나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놈도 지금 보세요.

어떻게 이 안에 구성 요소가 잡힐까?

나+들이야?

나들+이야?

나들+이죠.

이렇게 나뉘야죠.

즉 나다, 들다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가 어떤 기능이니?

접미사죠.

명사화 접미사.

그러면 어쨌든 나들+이가 접미사가 붙어있다는 이야기는

애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파생어.

1번 답지 어떻게 바뀌었어야죠?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애는 파생어인데 최종은 합성어다.

그 이야기야.

이 문제를 좀 헷갈려하더라고.

2번 같게요.

㉞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애는 단일어고 애는 지금 복합어잖아요.

그런데 애가 합성어나 파생어나, 파생어죠.

음이 명사화 접미사니까.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최종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죠?

합성어.

왜? 이미 만들어진 단어.

이렇게 해서 웃은 만들어졌으면 애는 어근 처리한다니까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합성어죠.

정답은 2번.

3번은 좀 헷갈릴 수 있어.

왜냐하면 애는 접두사고 접미사죠.

그러니까 쪼개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가 나오게 되면 접두사는 어떤 기능입니까?

강조.

그래서 드세다, 드높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드높다도 있으니까 드높다의 드높이는 뭐예요?

피동, 사동할 때 이인 거죠.

여기 드높이다는 사동 개념인데

그러면 애는 강세 접두사,

그다음에 애는 사동을 만들어주는 접미사 구성입니다.

이거 드높다에 이가 붙은 건가?

아니면 높이다, 라는 단어에 드, 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은 건가.

이런 거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든 답은 안 바뀌어.

왜냐하면, 출제자도 애들이 그거 고민할 수 있다는 걸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3번을 준 게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결과물 파생어 맞죠.

왜? 이거 지금 뭐야?

하나로 합쳐졌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 이거 어근이야.

어근에 접미사 붙었으니까 이거 신경 쓸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어미는.

그래서 어근에 접미사 붙었으니까 최종은 파생어야.

그런데 이 재료가 지금 파생어예요, 합성어예요?

파생어죠.

그러면 답이 틀렸잖아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라고 했는데 파생어.

구성 요소를 중 하나가 파생어인 최종적으로 파생어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끊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똑같아.

어떻게?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는 파생어고 최종적으로도 파생어 떨어져.

앞으로 보든 뒤로 보든 그거 고민할 때는 아니예요, 이 3번 답지는.

그러면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동이나 피동은 최종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서 높이다를 찾았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니까?

높다에 사동사.

알겠죠?

그다음 먹히다 찾았다 그러면 먹다에 피동사.

그 정보는 무슨 정보냐면, 이미 만들어진 어간에

이나 히를 붙이는 건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두사 먼저 붙여주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다음, 애를 가봅시다.

애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집집.

명사, 명사 합성어죠?

집집이 돌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부사 만들어주는 거죠.

부사화 접미사.

따라서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최종 파생어.

답이 틀렸죠.

왜냐하면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애를 가지고.

5번은 뭐라고 했어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이는 뭐야?

접미사니까 파생어죠.

그러면 애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틀렸죠?

합성어라고 했으니까, 벌써.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틀렸어.

터는 명사잖아.

터가 좋구나 이럴 때.

그러면 어쨌든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합성어.

5번은 완전 앞뒤가 다 틀렸어.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8번 갑니다.

8번 ㄱ은 어디에서 끊어요?

지희는 끊고 목소리가 곱다.

무슨 이야기냐, 지문 잘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ㄱ을 보게 되면 이제 문장 단위에서

직접 구성 요소를 판단해보겠다는 건데 이놈이 지금 서술어야.

그런데 이놈의 직접 주어는 이놈이고 그리고 이놈은 전체 주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구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주어부와 서술어를 나눈다면 여기서 잘라야죠.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맞는 이야기고.

다음에 ㄴ의 경우에는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보면 무슨 문장이야?

-했다고, 인용절을 안은문장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었다의 주어는 사실 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끊어주면 여기서 끊어줘.

그런데 어차피 애는 없으니까

이 문장 안에서 끊어줬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지.

이걸 여기서 끊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건 왜? 하나의 절인데.

이것만큼 긴밀한 게 어디 있어.

왜 이걸 중간에 잘라버려.

이것도 중간에 못 자르는 것처럼.

이걸 먼저 자르고 이걸 또 쪼개면 여기 중간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계를 따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를 쪼갤 수가 없다, 라는 거죠?

ㄷ은 가장 기본적인 문장.

그래서 동수가 주어, 미희에게 부사어, 선물을 목적, 주었다 서술어라고 한다면

서술부와 주어부를 한 번만 쪼개다고 한다면 동수가에서 잘라줘야겠죠?

다음에 ㄹ 같은 경우에는 밝혀졌다가 서술어인데 뭐가 밝혀졌죠?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명사절로 주어가 전체가 돼 버렸으니까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그다음 밝혀졌다를 잘라줘야 되는 게 맞겠고

다음에 ㄱ, 무엇이 명언이다.

무엇이 명언이다의 구성인 거죠?

그래서 명언이라는 명사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있는 이 서술어는 그냥 앞에 체언 하나만 나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명언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 건데 이것 자리에 긴 게 나와 있어요.

-라는 말은.

그거 다 하나짜리로 봐야죠, 주어부.

그래서 ㅁ에 쪼개는 것도 적절하게 쪼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옛말 문법이 껴 들어가 있진 않았어도 난이도가 있었고

좋은 문제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다음 9번에서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문 보고 이해하는 거 아니야.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

9번 문제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고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주면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변화 과정, 자릿수 변하는 거.

그리고 사동문으로 바꿨을 때 사동주가 튀어나와 주는 것들.

그다음에 간접사동하고 직접사동 부분에서

단형사동, 장형사동 나뉘었을 때

이게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9번 문제는 고맙게 좀 빨리 푸셔야 될 문제 5번이었고

이제 10번인데, 우리 지금 옛말 문법에서 걸려있는 게 마지막 문단이에요.

단서 딱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단 읽어보자고.

15세기 국어에서 사동 범주는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기, 오/우, 호/후, ㅇ·/으 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현대 국어 -게 하다에 해당하는

게 ㅎ·다 부분이 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 사동 접미사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으키, 이키, 애, 이우.

여기까지 잡아주는 거 아십니까?

좀 다른 게 보인다는 거죠.

일단 리는 안 보이고 이, 히, 기 보이고

오/우가 있는데 우리는 우는 있지만 오는 없잖아요.

호/후는 또 뭐야, ㅇ·는 뭐야?

이런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적용할 문제가 있겠구나.

이제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0번을 딱 봤더니, 일단 1번부터 해석 보자고요.

1번에 ㄱ을 보니까 얼우시고예요.

현대어 풀이는 어떻게 됐어요?

얼리시고.

그러니까 뭐야?

얼다를 만들 때 현대어 풀이가 얼렸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동 접미사가 쓰였는데 우리가 현대에 쓰고 있는

사동 접미사를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우라고 하는 사동 접미사를 썼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이 우라고 하는 접미사가 현대는 없다 그러면 1번이 틀리겠지만

1번 설명은 뭐라고 했냐면,

동일한 어근인 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의 형태와 현대 국어의 형태가

다른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거는 괜찮은 설명이죠.

다음 2번, 문제없죠?

잃-게 ≡ ·야뇨,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게 하다가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줄어들어서 표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음돼서 일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게 하는데 왜 케 하가 나오지?

그러진 않았겠지?

연음하는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ㄴ 설명도 맞는 거고.

다음 세 번째 보게 되면, 안치시고.

이것도 똑같잖아.

지금 연습시켜서 발음이 되는 것처럼

옛말 문법에서는 안치시고로 표기되어있고

현대 국어의 풀이에는 안치시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ㄴ 가지고 똑같은 답지 내도 상관없잖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것이

당시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있구나, 라는 이야기죠.

3번 답지, 15세기의 국어에서는 어근과,

그다음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다르다.

우리는 형태를 유지해줘야 되니까 끊어 적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4번인데, 선생님은 이 르 때문에 이 문제 푸는 거야.

그리고 답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에 쓰인 양상을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찾아야 돼?

형태소를 끊어야 돼.

이것도 9월이었죠?

평가원에서 제시한 9월인데 옛말 문법에 있는

문장 형태소를 나누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쪼개야 돼요?

원형은 살다죠.

연음됐을 거라는 생각을 돼요.

원래 사다가 아니잖아.

이 단어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살다 더하기 뭐야? 이 아래아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연음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리+잇+가.

이렇게 나오죠.

다 각각 기능 있는 거 보이죠?

용언의 어근 뭘니까?

살다 어근이죠.

접미사, 접미사, 접미사, 접미사죠?

이거는 종결어미죠.

아, 다시.

접미사.

이거는 무슨 접미사예요?

살리다.

현대국어에서는 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동 접미사가 뭐로 지금 쓰인 거야?

아래아로 쓰이는 이놈.

지금 아까 밑에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았던 요소들이 있어.

호도 있고 후도 있고.

그중에 이놈이 있었던 거죠.

애가 바로 사동 접미사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간은 여기까지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고 이쪽은 다 어미인데

그중에서 이 시, 무슨 선어말 어미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죠?

그다음에 리.

르을 나타내기 위한 선어말 어미죠?

그다음에 잇.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죠.

-하습니, 이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가는 뭘예요?

종결어미.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죠.

이런 각각의 역할이 다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애네들은 선어말 어미, 마지막은 어말어미, 이런 분석.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자를 수 있냐는 힘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것을 이렇게 끊어낼 수 있냐.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서 지문에 있는 거.

어 그러네? 현대 국어에 안 쓰였던 접미사 있네를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죠.

5번을 딱 봤더니 맞기시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맞기다가 벗기다가 됐죠?

그런데 어간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해서 접미사가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전부 다 맞기다, 벗기다 이렇게 사용됐으니까.

5번까지 봤습니다.

칠판을 깔끔하게 지워보고 이어갑니다.

11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11번 보게 되면, 애는 두 번째 문단부터 옛말 문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우선은 11번부터 처리해보도록 합시다.

ㄱ부터 ㅁ에 해당하는 정보를 설명해주라는 이야기죠?

먼저 1번에 보게 되면

아기 장수의 경우에는 아기와 장수로 쪼개니까 명사+명사.

즉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고요.

다음 2번에 맨손의 경우에는 이 맨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손이라는 명사 앞에 붙어있는 것.

이게 이 문제는 진짜 쉬워.

3번에 보게 되면, 쌓이는은 어떻게 나뉘야 돼요?

쌓다, 그다음에 접미사 이, 그다음에 ㄴ.

이렇게 해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쌓 어근에 파생접사인 이가 붙었다.

다음 4번, 4번도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걸 모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깨뜨리다, 라는 단어.

우리 파생어, 합성어 공부한 친구들 다 알죠.

표도 줬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강세 접사.

그래서 깨다, 라고 하는 단어.

깨 어근에 뜨리나 트리나 뿔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강세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구성이기 때문에

깨뜨+리는으로 쪼갤 수가 없는 구조죠.

정답은 4번이었고.

5번은 뻘고요.

쉽죠?

이제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단부터 좀 봅시다.

12번 문제만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 문단을 지식화 해주세요.

12번 문제와 상관없는데도.

이러한 일반적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억해봅시다.

접사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형태소를 딱 나누면

어근이나 접사냐로 쪼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근이나 접사냐.

모든 형태소는 어근이나 접사냐.

어근은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를 일컫는 다른 표현이고

접사는 뭐예요?

형식 형태소를 일컫는 모든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접사,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파생 접사라는 것과

굴절 접사, 라는 것으로 나뉘진다.

그래서 파생 접사 안에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는 것이고

굴절 접사가 조사와 어미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차이는 파생 접사는 어근에 붙어 단어를 생성하지만,

만들어내지만 그래서 사전에 등재를 시킬 수 있지만

굴절 접사는 어근에 붙는다고 해서 단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가 원칙이죠.

즉 조사가 어근 뭐?

책 뒤에 붙었다 해서 책이 단어가 되고

책을이 단어가 되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또 어미가 어근 부분인 먹, 어근이죠?

어간이면서 어근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먹 부분에서 먹는, 단어가 되고

먹어서, 단어가 되고.

사전에 등재를 시키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본형인 먹다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미라고 하는 건

단어를 더 추가해주고 만들어주는 기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이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즉 역사성을 따졌을 때 이렇게 어근에 조사를 붙였던 그런 형태가

굳어져 단어가 되고.

어근에 어미가 붙었던 것이 굳어져서

단어가 되는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볼게요.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인 하지만은 하다는 어간에 지만이 붙었던 것이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고 있어요.

원래 하다는 이렇게 표현됐죠.

더하기 지만이 붙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비슷한 예로 예를 들면 먹+지만이 단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어미일 뿐이잖아요.

형은 먹지만 나는 안 먹어 할 때 연결어미인 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하다 할 때의 이 하다에

연결어미인 지만이 붙어서 옛날에 표기가 됐던 건데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서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죠?

아래아는 없어지면서 바뀌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이라고 하는 뭐가?

접속 부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근하고 어미의 결합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가 되는 예로 하나를 쫓고

또 그다음, 체언에 조사가 결합된 예가 역사적으로 굳어

새로운 단어가 된 게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여기에 있는 예가 어떤 겁니까?

아기, 라는 단어가 있었고.

우리 호격조사, 부르는 말로 해서 아나 야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를 불러서 아가, 이렇게 해서 이가 저버린 거죠?

이렇게 아가 했었는데 이게 단어가 돼 버렸다는 거죠?

원래 그냥 아기야, 아기야.

이렇게 불렀던 건데 아가가 돼 버리고 이게 굳어져서

역시나 명사로 구성이 된 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12번이죠?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인

고나 구가 결합한 형태로 굳어져

새로운 인칭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인은 어떤 사람 고에서 볼 수 있듯, 기억하십니까?

의문형 종결어미 아형도 있고 오형도 있다고 했죠.

판정이나 설명이나.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거 있고

그다음에 2인칭으로는 니다나 이런 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종결어미예요.

그런데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미를 붙이는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 중세 시기 때 썼던 거죠?

의문형 보조사야.

우리도 사실은 이래요.

요 같은 경우 보조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먹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뒤에 요를 붙이게 되면

이게 평서문도 만들 수 있고 의문문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체언 뒤에 붙는 건 아니었어.

어디예요? 용언 뒤에 붙은 구성으로의 보조사였죠.

선생님, 책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좀 달라요.

애는 책이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책이예요?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잡히는 거지

책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책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의 요가 이요로 봐야 돼요.

이요로 보고 -이다, -아니다 구성에 이렇게 붙습니다.

이건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다, 그다음에 -아니다, 라고 하는 놈에는

그 뒤에 곧바로 뭐가 붙을 수 있느냐,

요, 라고 하는 어미가 붙을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어미가 붙는 거예요.

이건 어미예요, 알겠죠?

왜? 아니까지 어간, 요는 어미입니다.

지금 이 요는 보조사 이야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생각해본다면 보조사는 용언 뒤에 붙는 구성이죠.

그런데 이때 중세 시기에 의문형 보조사, 라고 하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체언 뒤에 곧바로 붙여요.

그러면 체언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대명사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12번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된 건데

15세기 국어에는 누를 이르더뇨, 라고 했어.

그러면 보세요.

누를 이르더뇨, 이거 풀이 어떻게 돼?

누구를 잃으던가, 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15세기 당시에 누구, 라고 하는 대명사의 표기는 뭐였구나?

누였구나, 라는 걸 여기서 확인했어.

그다음 봤더니 내 스승이 누고.

이거예요.

의문형 보조사 고/구가 붙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누가 누구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이놈이 의문형 보조사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가로 현대어를 지금 풀이해준 겁니다.

즉 15세기에는 누구, 라고 하는 단어.

누구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누였다 이거예요.

그다음 근대 국어를 샀어요.

근대 국어를 봤더니 이 벗은 누구고.

이렇게 나갔어요.

아, 그 전에 저것도 가야 되겠구나?

(다)에 하나 더 있죠?

이것까지 적겠습니다.

누구.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조사로 고나 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고나 구를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은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똑같은 뜻으로 잡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있었던 단어.

어쨌든 핵심은 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명사는 15세기 당시 누.

중세 시기는 누였다.

그런데 (나)의 근대 국어 때 보니까

두 가지 표기가 나와 있는데

이 벗은 누고고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 한 벗은 누구고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근대 때는 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의문형 보조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누가 아니었다는 걸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풀이가 누고고나 누구고나 누구인가의 풀이가 똑같이 나오니까

고를 제외한.

이것도 지금 보세요.

의문형 보조사가 근대 때는 뭐만 사용되고 있습니까?

고만 사용하고 있죠.

여기는 구나 고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누고와 누구가 남아 있어요.

즉 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중세 때는 이게 됐는데

이미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굴절 접사가 붙어서 단어가 만들어진 하나의 사례.

여기도 대명사인 누에 보조사가 더해졌는데

그게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현대 국어에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찾으세요?

그다음에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죠, 누구.

그러면 지금은 누고는 안 쓰고 뭐만 남았다?

누구만 남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해보니까 정답은 1번이죠.

(가)에서, 즉 중세 국어 당시에서 미지칭 인칭 대명사는 세 가지.

누, 누고, 누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만 있었다.

고나 구는 조사였을 뿐이니까요.

다음 갑니다.

13번에서 14번을 가도록 할게요.

13번에서 14번은 우선 지문 수정을 하나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평가원이 아니면 좀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는 정보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4월 학평인데 지문이 잘못 나와서 어느 부분을 여러분이 수정하셔야 되냐면,

A 단락이에요.

현대 국어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나 하고와 같은 조사가, 라고 했는데

하고는 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면

집에 가자.

친구가 집에 가자.

그다음, 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라고, 라고 하는 걸 조사라고 본다는 거예요.

무슨 조사? 사전 찾아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인용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런데 지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라고나 하고와 같은 조사라고 했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사는 앞 단어랑 무조건 붙이게 되어있어요.

하고의 표기는 무조건 띄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야?

애 조사야 아니야? 조사 아니에요.

하고는 조사가 아니라 이 라고를 대체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용절로 처리는 되거든요.

그런데 애가 조사는 아니에요.

그냥 동사인 하다의 활용형이에요.

그래서 동사지 조사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거는 라고와 하고와 같은 조사는

좀 오해를 한 표기가 되는 거니까 이진 수정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애는 안은문장, 안긴문장 구성이었고

아까 우리 봤었던 명사절에 중세시기 때

옴이나 옴이나 디나 기가 붙었던 것에 추가가 들어가요.

그거 추가.

밑에서 네 번째 줄, 관형절에는 -은.

이거는 현대 국어에도 쓰이는 거죠.

그런데 ㅅ, 현대 국어에서 단어가 만들어질 때 쓰이는 사이시옷은

중세 때에는 이렇게 관형의 기능을 해주는 역할일 때가 많았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ㅅ도 주목해봐야 되겠고.

그다음 부사절은 현대 국어와 유사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인용절이나 서술절은 조사나 어미의 표지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지가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죠, 중세 때는요.

그러면 13번 문제인데, 13번 문제는 문장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다음 ㄴ,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춰놓고 이 세 문장 짜임새 확인해보세요.

그래야 문제 풀잖아요.

쫄개볼게요.

서술어부터 갑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서술어 나왔죠?

뭐가 알맞다는 거예요?

음식이 알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전체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안긴문장이 보이네요.

아이가 먹다.

그다음에 다져지다.

그러면 구성을 보게 되면 무슨 절하고 무슨 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일단은 다져진 음식, 그다음에 먹기에가.

이거 기 나왔죠?

그러면 애는 명사절, 애는 관형절이죠?

관형절의 주어는 생략.

음식이겠죠?

음식이 잘 다져지다, 이거죠.

그래서 관계관형절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잡히고요.

니 문장 보겠습니다.

서술어 뭐예요?

알았어요.

누가 알았죠?

내가 알았네요.

그다음에 보는데 애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일단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표지가 보였어요.

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묶이는데 누가 사라졌냐면 그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명사절로 잡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명사절 안에 더 있다는 거야.

명사절 안에 뭐가 더 보입니까?

보니까 이게 보이죠.

소리가 없다.

서술어, 주어 구성.

그래서 애가 뭘 꾸며주는 거죠?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절? 부사절이죠.

그래서 애는 명사절 안에 부사절이 포함돼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ㄷ을 가보겠습니다.

서술어 뭐예요? 외쳤다.

누가 외쳤죠?

그가 외쳤죠.

그다음에 좀 따져볼게요.

달리다, 라는 서술어 보이죠?

주어가 지금 빠져있네요.

내가 달렸겠네요.

내가 운동장을 달리다.

그런데 애는 달리는으로 관형절로 안겨 있습니다.

뭘 꾸며주고 있어요?

나를 꾸며주고 있네요.

다음 발밑을 조심하라고가 나와 있죠.

간접 인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표지 뭐 보고 판단해야 돼?

고가지고.

간접인용이니까 이때는 라고 아니예요.

라고는 직접 인용에 쓰이는 거고 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바로 인용절로 걸려있는 거죠.

주어는 역시 생략돼 있는 거죠.

너는 발밑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대사 부분을 간접 인용했습니다.

이 구성을 잘 찾아내시면 문제 푸는 거는 쉽죠.

1번, ㄱ은 ㄴ과 달리.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

명사절 있고 명사절 있는데 조사가 붙은 것도 맞죠.

그런데 부사어로 기능한다.

그러면 애는 예가 부사어죠, 부사격 조사.

그래서 먹기에 알맞다.

애는 을 붙었으니까 목적어.

1번 설명은 맞죠.

그래서 명사절 다 들어가 있고 조사도 붙어있지만
부사어로 가는 건 ㄱ만이니까.

2번은요?

ㄴ은 ㄱ과 달리 부사절이 사용되어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ㄱ, 부사절은 없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헛갈리면 안 돼요.

이건 명사절이지 부사절은 아니에요.

명사절이 부사격 조사와 결합되어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
부사절은 아닙니다.

부사절은 형식이 나와야 되겠죠.

2번 설명도 맞겠고요.

3번, ㄷ은 ㄴ과 달리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꿔 인용한 절이 있다.

다음 4번, ㄱ과 ㄷ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있다는 거죠.

맞죠?

ㄴ과 ㄷ은 하나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겨있다.

ㄴ은 맞아요.

그러니까 안긴문장 안에 또 안겨있지만 애는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리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설명 지식화됐으면 좋겠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ㄱ · ㄷ · ㄹ이 멀면

걸식하디 어렵고, 라고 했는데 현대어 풀이가 걸식하기가 어렵고.

즉 명사절이고.

명사절을 만들 때 표지가 뭐라고요?

당시 중세 때는 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 설명은 그 이야기고요.

다음 2번, 남기 ㄷㅎ · ㄹㅅ · 이가

이 동산은의 서술어로 기능하므로, 라고 했어요.

이 동산은 나무가 좋으므로죠?

그러면 이 동산은 주어, 나무가 주어, 좋다 서술어.

서술절 안은문장이 형성되는 거죠.

주+주+서니까.

그래서 중세 국어에도 서술절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3번, (다)에서 꽃 도쿄 여름하나니에 대한 현대어 풀이입니다.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 이렇게 나갔죠.

그러면 뭐가 뭐하고 뭐가 뭐하다.

대등 관계를 만들어주는 이어진 문장.

그래서 여기서 연결어미가 고가 나와 있으므로 3번 설명 적절합니다.

3번 설명 그런데 꽃 도쿄잖아요.

정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 곤란해요.

이어적기 하다 보면 이렇게 축약 형태 나오는 거지

고가 있는 건 맞잖아요.

다음 4번 갑니다.

(가)에서 ㅁ · △ · ㄹ히 멀면과 (다)에 불휘 기픈을 보니

-(으)ㄴ이 붙어 관형절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이거 풀이 한번 보세요.

(다)에 불휘 기픈은 풀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은으로 갑니다.

그러면 뿌리가 깊은은 관형절이고 뭘 꾸며요? 나무를 꾸며요.

그런데 여러분, 4번에 (가)를 보세요.

ㅁ · △ · ㄹ히 멀면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멀다에 면이라고 하는 거.

ㄴ이 붙은 게 아니라 면이 붙은 거죠, 어미.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준 거죠.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연결어미 면인 거고

여기에 ㄴ 어미를 찾을 수는 없어요.

관형절 구성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에 보게 되면 도ㅎ · ㄹㅅㅅㅅ 부분과 뭘ㅅㅅㅅ.

도ㅎ · ㄹㅅㅅ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똥다 더하기 양성이니깐 이렇게 붙고요.

그다음에 밑에 뭘ㅅㅅㅅ는 뭐 더하기, 받침 없으니깐 ㄹㅅㅅㅅ.

-하므로.

이거는 현대어 풀이 보게 되면 (으)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이 뜻이 이 뜻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뭐한다?

여기 나오죠.

뭘ㅅㅅㅅ.

아니 흔들리기 때문에 뭐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원인을 나타내주기 위한

그러한 연결어미 표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5번, 16번 보도록 합니다.

현대 국어 1문단에서 이거는 아는 정보죠?

현대 국어에서 음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 중에

형태는 같지만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사인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인 걸음.

명사 높이,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그래서 형태가 같은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부분 볼게요.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도 아는 정보 맞죠?

여러분, 만약에 재료들이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즉 전성어미라고 한다면.

좀 천천히 설명합니다.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전성어미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어쨌든 용언이라는 거죠.

동사나 형용사.

뭐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접미사가 붙어서 그 단어가 달라졌다.

즉 용언에서 출발했지만, 접미사가 붙어서 아예 명사가 돼버렸다든지

용언으로 출발했지만, 접미사가 붙어 아예 부사가 됐다든지 하는 구성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용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명사화 접미사인 이나 음이나 기나.

이런 게 붙어서 아예 단어가 명사가 됐다면

부사어의 수식이 아닌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죠.

수식 가지고 푸는 게 제일 편해요.

16번부터 빨리 봅시다.

ㄱ에 해당하는 거 고르라는 거잖아요.

즉 동사나 형용사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로만 묶인 것.

1번 가볼게요.

많이 얇이 항상 미덕인 것.

많이는 부사어죠?

얇음 알다의 명사형인 거죠.

즉 폼사는 뭘니까? 동사예요.

위에 거는 동사 맞습니다.

밑에 가볼게요.

격한 슬픔이에요.

여러분, 격한은 관형어죠?

관형어의 수식 받으면 애는 명사가 됐죠.

그래서 슬픔은 명사입니다.

따라서 1번은 두 번째 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동사나 형용사로만 이루어진 걸 찾기로 했으니까.

2번 갑니다.

멀치볶음, 난리 났네.

이 멸치볶음을 어떻게 동사로 처리할 거니?

단어인데 그냥 명사죠.

그다음 몫시 기쁨.

애는 형용사 맞죠?

몫시는 부사어니까 몫시 기쁘다.

서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명사형일 뿐이지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

기쁘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답지는 첫 번째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다음 3번 답지요.

큰 묶음.

그러면 큰은 관형어.

그러면 뒤에 묶음은 명사로 처리가 되겠죠.

위에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밑에는 군무를 춤과 동시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명사 춤이 아니죠?

군무를 추다에 서술성을 지니고 있는데

앞에 수식이 없어요.

넣어줘도 좋아요.

군무를 많이, 멋지게, 등등 부사어를 넣었을 때 어울리는 자리라고 한다면

애는 용언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우리 용언할 때 이런 문제는 많이 풀었잖아요.

이제 4번 가보자고요.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의 도움은 동사 맞죠.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도움으로써.

열심히와 같은 부사 언어 쓸 때 자연스럽습니다.

또 밑에도 나는 그를 온전히.

이미 부사어가 있죠?

온전히 믿음으로써,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나 믿음은 민다에 활용형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애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아이가 울음 섞인.

그러면 울음이 섞였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는 명사로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울음이라고 했을 순 있어요.

슬픈 웃음 섞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이 자연스러운 자리고.

따라서 위엣것 때문에 안 됩니다.

밑에는 괜찮아요.

밝게 웃음, 이렇게 나왔으니까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웃음은

동사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옛말 문법과 관련되어있는 15번 문제가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도 이번 시간 이후에는 지식화하는 게 좋겠죠.

보니까 이 음과 이가 중세국어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할 수가 있었다.

현대 국어에 두 가지 음은 중세국어 명사, 파생접미사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중세국어에 명사를 만들어주기 위한

파생접미사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명사 파생 접미사,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양성모음, 음성모음 지켜주는 거죠? 모음조화.

그다음요.

명사형 어미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걸음과 걸음 같은 경우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걷다죠.

걷다 더하기, 애가 만약에 명사로 만들어지는.

즉 현대 국어에서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

명사를 지금 만들어주고 싶다고 할 때는

접미사를 붙여줘야 되는 거니까

ㄱ는 음성이므로 음성모음에 음을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붙어요.

그다음에 ㄷ은 그 당시에도 불규칙 용언에 걸려들어가기 때문에

ㄹ로 바뀌지만, 그 ㄹ은 연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그래서 애는 뜻이 명사로 거름이 되는 거죠, 지금의 거름.

그런데 애는요?

걸음을 많이 걸음 할 때 많이 걷다의

이 서술성을 지니고 있는 걸음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표기됐겠다?

음성모음이므로 음성을 붙여줘야 되겠고 이때는 이거죠?

그러면 역시나 ㄷ이 ㄹ로 바뀌면서 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 품사는 여전히 걷다.

동사로 처리되는 그런 구성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접미사의 형태하고 어미의 형태가 아예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구별이 더 수월했었다.

이 이야기죠.

다음, 마지막 문단입니다.

앞서 말한 현대 국어에 두 가지 이.

이 이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부사 파생 접미사의 헷갈림이었어요.

그런데 명사 파생 접미사는 중세 때 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파생 접미사로는 마치 관형격 조사처럼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됐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붙는 거랑, 그다음요.

아예 부사 파생 접미사 구성.

이거는 현대 국어와 동일하게 -이를 쓰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애네들은

전부 다 두 개씩 있었다는 건 모음조화를 고려했었지만

부사 파생 접미사는 모음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나무의 높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다음에 높이 나는 제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나무의 높이 할 때의 높이와

그다음에 높이 나는 제비할 때의 높이는 품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애는 명사로 잡혀야 되는 것이고

애는 지금 부사로 잡혀서 수식해주는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됐을 것이다?

높 더하기, 양성이네요.

애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게 되고.

그러면 결국 연음이 되니까 노피.

이렇게 잡히는 거고.

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형태가 달랐던 것이다, 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15번 풀어볼게요.

열음이, 열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열음은 열다에 뭐가 붙어야 돼?

명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열, 여는 음성이죠?

이거 붙어야 되겠죠.

음.

그러면 여름이 되는 거죠.

열매의 옛 단어는 그래서 여름이예요.

다음 열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명사형 어미를 붙여야 되는 것이고

명사형 어미로는 음성 이걸 붙여서 여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번 설명 맞고요.

다음 2번, 거름과 거름의 형태를 보게 되면

파생명사, 동사의 명사형이구나.

다음 3번, 거름과 노피.

이거를 보게 되면 모음조화 양상을 지켜줬으니까

이제 높에는 움이 아니라 음이 붙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만약에 애를 명사형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높이.

양성이니까 명사형 어미를 붙일 때는 음을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걸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노퍽.

이렇게 형성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뒤집혀야 되죠?

뻘히 이야기해줬는데 노퍽이 파생 부사야? 명사지.

노퍽이 파생 명사야? 부사지.

그래서 일단 4번이 쉽게 답이고요.

다음 5번에 보게 되면 곧다나 곧다의 경우에는

파생 접미사 이거랑 붙는 거니까.

즉 양성이나 음성이나에 따라 구분 짓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양성, 음성.

그러면 다 조합할 때는 이랑 붙어야 되고

결과물은 그냥 고디, 구디.

이렇게 갖췄죠.

당시에는 뭘 안 하니까.

구개음화 현상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을 거예요.

16번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17번, 이 부분은 워낙 쉽네요.

통사, 비통사의 구조인데요.

제가 이 부분 옛말 문법에서 설명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역시나 현대 국어에도 통사적 구조를 다 외울 게 아니라

비통사적 구조를 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통사적 구조 새 틀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걸 통사 처리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 단어의 재료들을 따져보면서

어근인지 접사인지 파악하는 건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건데

중세 때는 조금 더 수월해요, 오히려.

뭐냐하면, 내가 아예 모르는 단어.

봐도 도대체 원형이 뭘까를 찾을 수가 없는 단어는 출제를 못 할 건데
현대 국어랑 비슷한.
좀 소리적으로는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거든요.
현대보다 용언의 결합형에서 비통사적 구조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중세예요.
그건 중세 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죽살다 같은 단어들.
빌먹다 같은.
죽살다는 여기 안 나왔죠?
죽살다는 지금도 있는데 죽살다, 빌먹다.
그러면 죽살다는 죽다와 살다가 결합인데 연결어미 없죠.
빌먹다는 빌다와 먹다인데 연결어미 없죠.
이런 식으로 용언의 결합형에서 연결어미 없이 결합하는
이 비통사적 합성어가 많이 유행했던 게 중세 시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문제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일단 17번은 현대 국어에서 통사, 비통사 파악하라는 이야기죠.
쉽게 정답 3번이었습시다.
보살피다는 보다와 살피다이기 때문에 보아살피다니까
연결어미가 없는 상태죠.
따라서 용언의 연결형 틀렸고 비통사적 합성어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3번 너무 쉬웠고.
다음 18번에 보게 되면, 이것도 문제는 없죠.
보시면, 2번이 답인데.
대신에 이걸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중세 시기의 존흥과 현대 국어의 진흥인데
이게 통사냐 비통사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진흥은, 이 진은 접두사인가?
뭔가 진짜의 흥.

여러분, 진흙이 진짜 흙,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죠.

물기가 많다, 라는 단어가 질다죠.

그러면 애가 질다인데 더하기 ㄴ이 붙으면 ㄹ 자리에 내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죠?

이 ㄴ이 있다는 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질흙 이러면 그러면 비통사죠.

그런데 진흙이라는 건 ㄴ이 들어오면서 빠지는 구성이기 때문에

통사 구조가 돼요.

그러면 이 질다, 라고 하는 단어의 옛 표기는 뭐였을까?

지문에 주진 않아요.

이것도 갑자기 질다가 준다, 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리는 없어요.

그래서 즐다고 ㄴ에 더하기 흙이죠.

이렇게 돼서 결국 뭐냐, 자리 차지하고 빠지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옛말 단어.

즉 질다가 옛날에는 즐다였을 거라는 걸 유추한 다음에

통사적 구조임을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19번과 20번 역시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 봤던 아예 애는 대놓고 중세 국어 문제입니다.

확실히 여러분이 보시면, 4월, 7월, 10월.

이런 쪽이 중세 국어 문제 쪽을 세련되게 못 만들고 있어.

딱 보면 평가원에서만 계속 참신한 정보를 더 주잖아요.

이미 한 번 쫓던 정보를 따라가는 그런 틀이 다른 학력 평가에 많은데

19번, 20번은 우리 앞서 중세 문법 이야기했을 때

많이 봤던 높임 표현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19번 문제 풀어보시면, ㄱ에는 시 보이죠?

습과ㅣ러시니.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인데
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현대 부분을 보면
왕의 이름은이예요.

그러니까 왕 자체를 직접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높여주는 간접 높임 표기죠?

다음 2번을 보게 되면

임금의 은사를 갓고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갓는 주체는 누군가요.

지금 안 나왔어.

그런데 누구의 은사? 임금의 은사.

그런데 임금을이 아니라 임금의 은사를.

이렇게 나왔으니까 역시나 간접 높임을 취하면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쓴 거죠.

다음 3번에 보게 되면 보쌌, 이렇게 나왔는데
세존을 높인 건 맞죠.

왜냐하면 문장을 보세요.

용왕이 세존을 뵈고야.

그러면 행위의 주체는 용왕인데 그 대상이 세존이므로
세존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뵈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용함으로써 용왕도 높아집니까, 간접적으로나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 4번, 태자께서 강당에 모으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으는 행동을 태자가 직접 했고

그걸 높여주기 위해서 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5번에 보게 되면 제불을 공양하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불을이라는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뵈을 역시 사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직접 높임입니다.

20번 가보죠.

학생 1과 2를 ㉠부터 ㉣까지 두 부류로 쪼갠는데

먼저 우리는 학생 1은 볼 필요도 없는 사실.

학생 2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학생 2는 ㉡.

나머지 ㉠, ㉢, ㉣를 묶었어요.

이유가 뭐니까?

㉡는 모시다.

㉠, ㉢, ㉣는 튼튼하시다, 가시다, 타당하시다.

어떤 차이예요?

주체높임이나 객체 높임이냐의 차이죠.

그래서 ㉠, ㉢, ㉣는 행위의 주체를 직접 높여주는 거라면

주체높임법.

그게 직접이냐 간접이냐는 상관없이 주체를 높이기 위한 것.

그냥 그렇게 보시고 ㉡ 모시다, 라고 하는 건

행위의 객체를 높이는, 대상을 높이는 방식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 1, ㉡, ㉢와 ㉠, ㉣를 묶었던 건

바로 직접 높임이냐 간접 높임이냐에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 ㉢는 직접 높임, ㉠, ㉣는 간접 높임으로 구성이 잡힌 겁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종합형 문제까지 해서 20문제를 싹 다 풀어봤고요.

실전 문제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문법하고 고전 문법하고 실전 문제까지 해서

다 시간을 잡아내면 선생님이 봤을 때 못해도

한 40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얼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강의를 듣기에도 되게 버거웠던 시간이었을 거고

그걸 연습하고 또 복습하는 데도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장담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또 실전 같은 경우 제가 알아요.

말 되게 빨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어, 라는 걸
전제로 깔고 엄청 빨리했습니다.

거슬리면 제가 느리게 들으라고 했잖아요.

난 바빠 죽겠거든.

진짜 시간 내에 다 설명하려면.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을 혹독하게 다루는 건
앞에 걸 해주라는 거예요.

이제 트렌드가 문법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제 문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상황이라면
선생님이 문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화작을 했을 때 쉽지만 시간이 걸리고

문법은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시간이 안 걸린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단계까지 가는 데 오래 걸려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좀 해서 문법을 내 거로 만들어놓은 상태라면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걸 풀어내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거.

따라서 화작을 하는 데는 시간 엄청 잡아먹고

결국 문학이나 비문학을 푸는 데에 시간을 많이 못 쓴다면
문법을 빨리빨리 푸는 다음에.

비문학.

특히나 어려워하는 비문학에 시간 투자를 조금씩 3분이라도 더해준다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든 문법적으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통 공부하는 학생층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상대적인 평가 점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또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때 내신에서 문법을 다루기 때문에

내신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거를 까먹고 수능에서 다 버려버린다?

그거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 이 강의를 내신을 공부하면서 들었을 것이고
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잘 연계해서 좀 큰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거로 마치겠고요.

우리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